

'5월 동행축제' 소비 활성화 마중물 역할 '톡톡'

중기부 행사기간 1조1천934억 판매 실적 기록 광주·전남도 1천만원·9천500만원 매출 집계

중소벤처기업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5월 동행축제'가 총 1조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보이며, 집계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6일 "지난달 1~28일 열린 2023년 '5월 동행축제'의 최종 실적 집계 결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6천200억원, 온누리상품권 1천819억원 등 직·간접 매출 8천3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물가에 자체브랜드 인기
홍플러스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성비 높은 자체브랜드 '홍플러스 시그니처'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모델이 PB 브랜드 '홍플러스 시그니처' 인기 상품을 선보이는 모습.

동행축제와 연계, 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 3천856억원까지 더하면 총 1조1천934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이다. 동행축제는 지난 9~12월 1년에 2차례 진행했으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5월 동행축제를 추가 개최, 연중 총 3회로 확대됐다. 이에 올해 처음 열린 이번 5월 동행축제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50개 이상, 전통시장·상점가 1천812곳, 백년가게 1천346개, 30개 지역축제 및 판촉전 등 주요 행사

와 연계한 판촉·홍보를 진행, 소비 촉진에 열을 올렸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5~6일 진행된 '광주 총장 라운데스타'와 연계한 지역상권과 특판전이 함께 하는 상생의 장 '우수 중소기업 특별 판매펀'을 개최했다. 지역기업 15개사, 170여품목이 참여, 행사기간 1만500명이 방문해 988만6천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전남에서도 지난달 20~29일 10일간 곡성계곡 장미축제와 연계한 특산물 판매펀을 진행했다. 25개사가 참여한 행사에는 23만명의 방문객과 매출액 9천500만원의 성과를 이뤄냈다. 다만 이번 동행축제가 소비 심리 위축 속에서 열린 만큼 불황을 못 풀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10일간 열린 '한겨울의 동행축제

원·윈터 페스티벌' 때 보다 행사기간은 3배 가까이 늘었으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매출은 지난해 (4천249억8천만원)보다 약 46%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행축제 봄, 가을, 겨울 3회에 걸쳐 매출목표를 3조원으로 잡았는데 첫 출발이 순조롭다"며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행사에서 가치소비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동참한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판매펀·축전 행사와 협업을 통해 오는 9월 예정인 동행축제를 더욱 알차게 기획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장 상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시원 기자

한전KPS, 협력사 화력 정비·안전 강화 교육

노하우 공유 안전 문화 확산 기대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나주 빛가람 호텔에서 전국 화력사업소 경상정비 협력회사 근로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화력 정비

·안전 기반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한전KPS는 발전설비 정비산업계 안전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협력회사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협력사 현장 근로자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2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협력사에게는 One-page 안전 교안 제공 등을 통해 현장 정비·안전 기반강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기술·안전 이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화력발전 계통 ▲응급처치 요령 ▲산업재해 사례 ▲청렴 및 윤리의식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해 심도 있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여 근로자들은 발전설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안전의식을 배양하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도 한전KPS는 발전설비 정비산업계에서 산업재해 사전 예방 및 정비·안전 최우선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정비산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KPS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에서 3년 연속 가장 높은 등급을 받는 등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5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임재만 기자

Luxury Lifestyle

보면 기분 좋고, 앉으면 행복하다. 최고의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원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REAL PRO MAF1 | MA32 | MAK1

Panasonic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광주국세청-광주대 '지역인재 양성' 업무협력 협약

광주지방국세청은 6일 "전날 광주대학교와 지역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대에서 열린 이날 협약을 계기로 광주국세청은 광주대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세무직 공무원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광주대는 광주국세청 산하 공무원의 직무 연수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한 긴밀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운영석 광주국세청장은 "광주대의 우수한 인재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실무현장에서 적용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예비 사회인인 학생들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윤 청장은 협약식 직후 광주대 호심관 소강당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국세청의 역할 등에 대한 진로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은성 기자

광주경총, 청년일경험 플러스 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기업형'에 참여할 14기 드림터를 모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청년일경험+(플러스)사업은 지난 2017년 시작돼 현재까지 5천888명의 광주지역 청년이 3천836개사의 드림터가 참여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대표사업이다.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지역에 소재를 둔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광주시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무경험과 직무역량 배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미취업의 장기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광주경총 광주청년일경험드림(Dream) 사업팀(062) 654-34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재만 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캠페인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C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2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3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4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